



# 대안가정

통권11호 (2005년 가을/계간) [http : www.daeanhme.org](http://www.daeanhme.org)

- 2. 칼럼 / 위기의 아이들
- 4. 캠페인 / 대안가정을 아시나요?
- 5. 자조모임 / 만나면 좋은 사람들
- 6. 대안가정일기(10가정 발췌)
- 11. 상담원 수첩 / 은별이 귀가를 보면서...
- 12. 대안가정 나들이 / 국화꽃이 활~짝! 웃음꽃이 활~짝!
- 14. 상담현황 및 소식
- 15. 회비(후원) 내역 및 재정
- 16. 후원안내



한/가/정/에/서/한/아/이/를/보/살/핀/다/면...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05. 11. 18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2층) / 전화 (053)628-2592 / 전송 (053)628-2594



## 위기의 아이들

지난 11월 5일 전국입양한마당축제가 대구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에는 전국의 입양가족과 예비입양가정 및 입양기관 관계자 6백여명이 참가하여 감동과 기쁨을 나누었다.

평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교재를 나누던 전국의 입양가족들이 축제에서 만나게 되면 여기저기서 반가운 비명소리가 터질 정도로 만남 자체가 감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입양한마당축제에 참가한 입양가족들이 가장 큰 감동을 받는 대목은 영상물이 상영될 때다. 깜깜한 객석 사방에서 훌쩍이는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어떤 엄마들은 아예 손수건을 꺼내놓고 울 채비를 하기도 한다.

이번에는 「위기의 아이들」이란 제목으로 입양이 시급한 아이들이 소개가 되었다. 4개 입양기관에서 보호 중인 18명의 아이들의 얼굴이 차례로 스크린을 채워나가자 여기저기서 숨죽인 울음소리들이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위기의 아이들」이 상영될 때 마침 아들 때문에 행사장 밖에 있었던 나는 며칠 후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을 보았는데, 나 역시 차오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한참을 울었다. 영상에 소개된 아이들 중 몇 명은 바로 우리 아들이 입양되기 전에 찍었던 사진의 배경과 동일한 배경을 하고 있었고, 그 순간 영상에 비춰진 아이의 얼굴이 우리 아들의 얼굴로 바뀌어 클로즈업되었기 때문이다.

아마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이 나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내 아이만 선택한 것이 거기에 남겨진 다른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럽고, 현실적으로 입양이 요원한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또 다시 입양을 계획하게 되는...

입양부모들이 가정을 찾지 못한 채 입양원에서 나이를 먹는 아이들에 대해 그토록 마음아파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생후 36개월이 지나면 입양될 기회를 영영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36개월이 되도록 입양되지 못하면 일반 아동양육시설로 넘어가게 되고, 그동안 무호적이던 아이들이 일가창립을 하여 단독호주가 되어 호적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호적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입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호적이 있다고 입양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에도 사실상 입양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입양가정들이 비밀입양을 희망하여 호적에 양자입양의 흔적이 남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입양이 되는 것이 더 적절함에도 호적 때문에 위탁의뢰되는 아동들도 있다. 친가정은 완전히 해체되고, 부모 중 어느 쪽도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동이 입양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아동은 처음부터 시설입소가 고려되거나 장기위탁 내지 그룹홈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영아원에서 아동양육시설로 옮겨져 아예 가정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 또 부모에게 돌아갈 기약도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가정은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그들도 언젠가는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게다가 최근에 접한 호적과 관련한 사례들은 더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른다.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취학 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온 아이들이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맡겨진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서야 비로소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을 갖게 되었다. 복잡한 가족사와 이해관계로 인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미루어오면서도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고, 아이를 맡겨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져버린 부모도 있었다.

태어나는 순간 당연히 그 존재가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입양원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수많은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살아가고 있고, 어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취학 때까지 호적도 없이 어딘가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다. 사실상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 아이들의 인권은 존재 자체가 부인됨으로 인해 기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더구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나 유기, 유괴, 살해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을 소지가 다분하다. 최악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방치로 사망하거나 살해되어도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고 영아사망 통계에 집계되지도 않는다.

최근 정부의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권리를 중시하여 아동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조로 가고 있다. 즉 아동의 입장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친가정을 상실한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입양가정일 것이다. 일시적으로 친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없게 된 아동에게는 위탁가정을 찾아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입양이나 위탁 중 어느 쪽이 아동에게 더 적합한가를 따지기 전에 형식적 요건을 먼저 따지고 절차상에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금의 실상이다.

분명히 존재하는 아동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아동의 인권을 부르짖을 수 있을 것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동의 인권이 진지하게 고려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빌어 본다.

김명희 대안가정운동본부 사무국장



# 대안가정을 아시나요?

- 대안가정 거리캠페인 -

대안가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에게 '대안가정'이라는 용어가 낯설기만 합니다. 대안가정을 부지런히 알리는 일!! 여전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대안가정 홍보를 위한 고마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구 교동 귀금속거리에서 개최된, '제2회 교동 패션주얼리축제'에서 대안가정 거리캠페인을 펼쳤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사무국 직원이 총출동하여, 자원봉사자들과함께 홍보 부스를 예쁘게 꾸미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대안가정운동을 홍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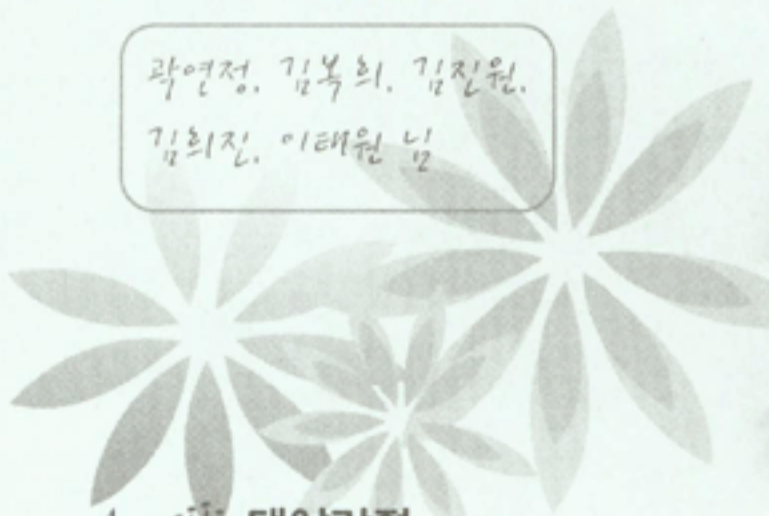
대안가정 홍보판을 유심히 살펴보던 시민들을 보며 '다음에 만날 땐 대안가정이란 용어가 낯설지 않겠지' 하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천천히, 오늘도 대안가정운동은 부지런한 한걸음을 옮깁니다!!

Go! 축제의 현장 속으로~!



고마운 자원활동가

곽연정, 김복희, 김진원,  
김희진, 이태원 님





# 만나면 좋은 사람들

- 대구, 경북 대안가정 자조모임 -

대안가정운동의 최고 원동력은 뭐니뭐니해도 대안가정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대안가정이 모이는 자리에는 특유의 친밀함과 끈끈함이 있습니다. 친정집에 온 듯, 즐겁고 편안한...

8월에는 대구지역 대안가정, 10월에는 경북지역 대안가정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함께 교제도 나누고, 번역동화집 『불확실한 나날들』을 함께 공부하며 위탁아동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각 집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나누는데 얼마나 재미있고 기가 막힌지...

대안가정 자조모임에서는 일상의 생생한 경험들을 나눌 수 있어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과는 다른 색다른 유익함이 있습니다. 위탁아동을 키우며 겪게 되는 말 못할 어려움을 나누며 어느새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들며 지지를 받게 됩니다.

## 대구지역 자조모임 (8월 25일, 대구)



▲ 태호네, 동진이네, 가을이네, 혜원이네, 유현이네. 대구의 다섯 대안가정이 모두 모였습니다.



▲ 예쁜 그림들이 어우러진 번역동화집 『불확실한 나날들』을 보며 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더 이해해봅니다.



▲ 마음놓고 우리집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 경북지역 자조모임 (10월 17일, 경북 영주)



◀ 영주, 봉화, 풍기, 상주의 대안가정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 경청하는 대안가정부모님들 못지않게 아이들도 놀라운 집중력을 보입니다.



▲ 예진이, 성민이, 대현이는 금새 친구가 되었습니다.



◀ 이번에는 위탁아동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위탁상황에 대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민이네

2005. 10. 01 / 도전자 성민이

수줍음의 성민이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낮이 익자 장난으로 큰아빠께 도전을 (가소롭지만) 슬슬 해오는군요. 업어달라고 하고, 어깨위에 올라 무릎을 타고, 안고 누르고 레슬링에 씨름을 혼합하여 큰아빠에게 도전을 하니... 어찌면 좋으리이까. 하지만 개구쟁이 큰아빠가 어찌 가만히 있으리요. 주특기 간지름으로 금방 성민이의 항복을 받아내고 승리했지요. 오늘은 교회에서 나이는 같지만 9개월이 빠르고 덩치도 더 큰 아이에게 이렇게 도전했지요. 성민 왈, '나이가 똑같으니 말 놓아도 되겠네.' 우리 모두는 이 말을 전해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도전자 성민이, 인생의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도전하길... 성민이 파이팅!!



2005. 10. 07 / 성민이의 최고의 날!

어제는 서울에서 큰누나가 내려왔습니다. 누나는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성민이의 장난감을 한보따리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에는 맨날 큰아빠 큰엄마와 놀다가 장난감이 오니 하루 종일 밥 먹을 생각도 안하고, 큰아빠도 찾지 않고, 장난감만 갖고 놀았습니다. 오늘은 큰엄마가 성민이 옷을 한아름 사오셨습니다. 멋진 양복도 사고 겨울에 입을 잠바도 사고 바지도 여러벌 샀습니다. 성민이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여기 와서 처음으로 노래도 불렀습니다. 저녁에는 떡볶이도 먹었습니다. 오늘은 성민이의 최고의 날입니다.

2005. 10. 12 / 장난꾸러기 성민

장난꾸러기 성민!! 저녁을 먹고 나서 지금까지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온 집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큰아빠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남자답게 항복하고 도전하고, 항복하고 도전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납니다. 웃도 다 젖을 정도로 어찌나 열심히 노는지 감기 걸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할머니 잠도 못 주무시고... 아무튼 큰아빠도 덩달아 아주 신이 납니다.



아란&은별이네

2005. 08. 10 / 아란!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잘 먹고 이젠 눈도 맞추어 웃기까지... 먹는 시간외에는 아주 조금 놀다가 잠을 잡니다. 하루에 먹는 양은 140에 6~7번 정도! 지난 7월 29일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모두들 예뻐해 주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서 좋습니다.

2005. 08. 10 / 은별!

눈망울이 또렷해서 예쁩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모두를 긴장시킵니다. 참! 은별이가 모유를 먹었나요? 진작에 물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분유를 잘 먹지만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자는 시간외에는 자꾸 안으라 보채기도 해서 안고 어르고 유모차도 타고... 웃는 모습은 참 예쁘네요. 방긋방긋 잘도 웃고... 지금은 잘 자고 있습니다.

2005. 10. 11 / 쓸쓸...

아란이의 옆자리가 비워졌네요. 아는지 모르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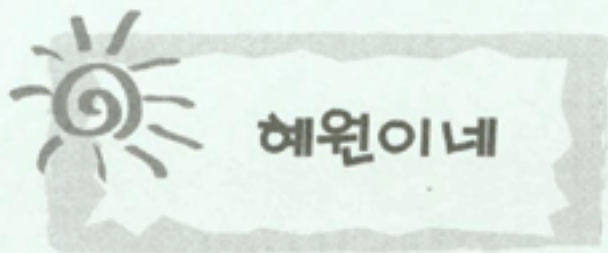
아란이의 울음소리만 커지고... 아란이도 은별이를 그리워하나? 아란이의 마음도 저와 같은지...

사실 한동안 외출을 거의 못했어요. 두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주말에 우리아이들에게 보게 하고 잠깐씩 볼일을 보았답니다. 약정일을 마치지 못하고 보내게 된 은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더군다나 치료를 끝내지 못해 마음 한구석이 아프네요. 언제나 잘 웃는 모습으로 자랐으면 합니다.

동육이와 가은이를 보내곤 몇날 며칠을 많이 울었는데, 지금도 아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은별이는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가버려서 조금은 황당하고 아쉽네요. 하여튼 은별이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답답합니다. 딱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은별이가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길 기도합니다.

2005. 10. 20 / 콧물

이번주가 많이 바빴어요. 월요일부터 외출이 잦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콧물에 코 막히고 열까지... 오늘 병원 다녀왔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아픔을 나타내니 보기에 너무 딱합니다. 어제는 언니가 아파서 병원을 따라갔거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아픈가? 아무튼 아프면서 크죠. 모두들 걱정 마세요. 예쁘게 잘 자랄꺼예요.



2005. 8. 17 / 혜원이네

혜원이가 대소변가리기가 참 힘든가봐요. 오늘도 바닥에 한번 이불하고 베게에 한번... 땀띠 때문에 빨리 가렸으면 좋겠네요. 헉! 방금도 바닥에 대변을! 발로 가지고 놀고 있네요. 그렇게 많이 먹는다 했더니... 요즘 혜원이 밥을 너무 잘 먹습니다. 먹는 거만 큼은 가리지 않고 먹어서 착하구요. 특히 혜원이가 고기종류랑 콩, 두부를 잘 먹더라고요. 제가 먹기도 힘든 콩을... 너무너무 잘 먹어요. 우유는 잘 때 한번씩 먹고 거의 밥을 먹어요. 과일도 좋아하구요. 특히 포도보면 콩 인줄 알고 "콩! 콩!" 이러면서 아주 어눌한 말투로 "주~세~요" 근데 막상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중얼중얼 대면서 손을 포개고 내밀고 있죠. 아! 혜원이 키가 컸나봐요. 형광등 스위치도 컸다 컸다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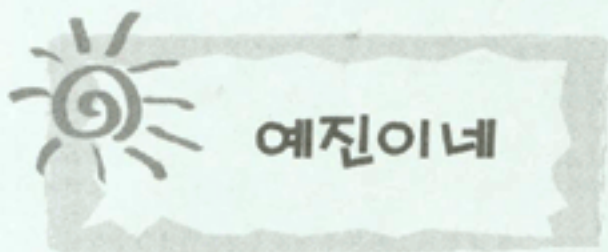
2005. 8. 21 / 혜원이 하루일과

우리집 귀염둥이 혜원의 일과를 공개합니다!  
7:00 기상 / 7:40 식사시간(한 그릇 똑딱!!ㅋ) / 8:00 아빠, 언니 배웅하기-배꼽인사, 토끼, 윙크, 이쁜 짓

셀 수 없음 / 10:00 오빠와의 전쟁(혜원이가 이김ㅋ)  
/ 10:30 우유 젓병하나(250ml) 비우고 주무심 / 13:00 일어나 점심식사(그야말로 식사) / 19:00까지 물놀이, 책읽기, 노래듣기, 춤추기, 할머니랑 전화하기(요즘 할머니랑 대화를 해요) / 19:00 저녁식사 식사 후, 놀면서 소화시키고 샤워 / 20:00 잠자리에 누워서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등 긁어주면 바로 잠들.

2005.8.21 / 아기돼지 프로필

- ◎ 이름/나이/키/몸무게 : 황혜원/3세(23개월) /100cm/15kg (아기돼지-ㄱ-;;)
- ◎ 제일 좋아하는 반찬 : 콩자반(사실 호박부침에서 부터 마늘장아찌까지 못 먹는게 없음. 가끔 애라는 생각이 안들)
- ◎ 제일 싫어하는 반찬 : 없음
- ◎ 제일 좋아하는 놀이 : 오빠랑 숨바꼭질하기
- ◎ 제일 싫어하는 놀이(?) : 머리 감기
- ◎ 특징 : 요즘 한창 말이 늘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요구사항이 엄청 많음
- ◎ 앞으로 해야 할 일 : 기저귀 떼기
- ◎ 개인기 : 윙크, 배꼽인사, 토끼, 호이짜(영딩이에 손대고 오리걸음, 자세 제대로 나눔), 울다가 바로 웃기, 예배 잘 드림 등등 다 이뻐요~



2005. 9. 15 / 어때요? 나 멋지죠?

내일 모래면 추석이네요. 모두 모두 잘 계시죠? 사무국에 계신 분들께도 안부전합니다. 뭐, 매년 명절 때마다 그렇게 선물도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가끔 만날 때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컸나, 예뻐졌나, 씩씩해졌나 서로서로 이야기하며 잘들 지냅니다. 사실은 예진이 요즘, 뛰어가다 넘어져서 이마에 혹이 하나 있습니다. 답엔 추석에 있었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2005. 9. 20 / 나 시집가도 돼요?

추석 전날 큰집에 가기 전에 서울 언니 자취방에 들러서 언니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얼마나 호들갑(?)을 떠는지... 추석날 아침, 큰 집으로 출발준비 끝! 언니들 뭐야, 빨랑빨랑해. 마음은 급하지만 아직 언니들이 짝바르는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진은 신나는 일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아빠 친한 친구가 추석 쇠러 고향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전주에서 밤을 새야 했답니다.

2005. 10. 9 / 가을 나들이

둘째 언니 간호사 가관식에 다녀왔습니다. 이젠 언니들 학교 교정도 낫설지 않은 듯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도토리도 즐기고 다람쥐도 쫓아가고 제 멋대로 랍니다. 키는 좀 컸는데 몸무게는 영 시원찮네요. 요즘은 하트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왜 그럴까? 아무튼 가을도, 예진이도 익어갑니다.



**다혜네**

2005. 8. 18 / 제목없음^^\*

다혜를 오랜만에 오래도록 업었다. 처음 내 등에 업혔을 때 가녀린 아기였는데... 오늘의 느낌은 딱 붙어 있는 힘센 매미 같았다. 얼굴도 내 등에 꼭~ "이름이 뭐니?", "밴다혜~", "몇살이지?", "넷살~", "엄마 좋아?", "나~엄마 쪼아~", "아빠는?", "아빠도 쪼아~", "언니랑 오빠는?", "언니, 오빠 쪼아~" 내 등에 업힌 다혜의 무게가 늘수록 더 넓은 세상으로 더 깊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2005. 9. 5 / 찾아보세요~

엄마랑 아빠는 노래한다고 무대에 서 있고 언니랑 오빠는 아이들 올라오란 다고 벌써 올라갔고... 언니가 다혜는 다른 언니랑 논다고 안 올라왔다고 했는데 사진을 정리하다보니 다혜가 빼꼼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비디오풀 보니 어디서 헐레벌떡 뛰어 오더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아마도

관중석 저 끝에서 '언니' 랑 놀다가 아이들이 무대로 올라가니 덩달아 이게 뭘일인고 하고 뛰어왔을텐데.. 사진을 보고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언니들이랑 오빠도 "어? 다혜 또 올라왔네?" 하며 대견해하더군요. 이젠 엄마 아빠 없어도 언니 오빠 없어도 잘 놀아요. 다혜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젠 많이 컸걸랑요. 호호호...

2005. 10. 21 / 엄마 조심해~ 맞찌?

다혜 바지를 세탁기에 넣는데 뭐가 튕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 뭐지? ... 주워보니 다혜가 오기 오래전에 찍은 가족사진이었다. 열쇠고리로 만들어진 것인데 망가지기도 하고 오래 되어서 굴러다니던 것이었다. 다혜가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나보다. 다혜는 사진을 줍는 나를 보고 "엄마 조심해! 맞찌?" 한다. "응 알았어! 다혜 호주머니에서 사진이 떨어졌어", "응~ 그렇구나! 그래도 조심해. 맞찌?" 어느날 벽에 걸린 (다혜가 없는) 가족사진을 보더니 하안이 보고 자꾸 다혜란다. 예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에 아기가 있으면 다혜란다. 다혜랑 가족사진 찍어야지 하면서도 여태 제대로 찍지 못하고 지나온 것이 못내 미안했다. 다혜야, 우리 품 잡고 가족사진 한판 박사! 맞찌?



**대현이네**

2005. 8. 28 / 딱 걸렸네~

햇살이 너무 따가워서 낮에 가려했던 시장을 저녁 먹은 후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제는 대현이가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여우를 피해가면 곰을 만난다고,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나선다.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할 수 없어 내일 가야겠다 하고 내가 포기를 했다. 대현이를 데려 가지 않으려는데는 이유가 다 있다. 함께 가면 좋은데, 갈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돌아올 때가 문제다. 첫째, 보는 것마다 사 달라고 한다. 둘째, 집으로 올 때 "엄마 나 힘들어 업어줘" 걷기 싫다고 길에서 고집을 피운다. 여하튼 이런 저런 이유로 시장 본 물건이랑 대현이를 데리고 오기에는 나에게서는 조금은 버

겁다.

그때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이 아빠가 산책을 가자며 대현이를 데리고 나갔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얼른 뒤를 따라 나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만나지 않았을 텐데 서로가 반대로 갔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딱 마주쳤다. 우리는 서로 마주 보고 박장대소를 하며 배를 움켜잡았다. 결국 이날 시장 보는 것 포기했다.



2005. 9. 18 / 추석 잘 보내셨나요?

대안가정 가족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지내셨나요? 모처럼 가족이 한데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송편도 빚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대현이는 한복을 입고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더니 옆집 아주머니께서 멋있다고 했더니 아주 좋아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빕니다.



## 동진이네

2005. 8. 28 / 개학전날 풍경

너무도 짧은(애들에게) 방학이 딱 하루 남은 오늘은 아침부터 바빴다. 학습문제집, 식물관찰 일기, 쓱쓱이학습지 등 조금씩 남은 숙제가 마지막 날이 되어 서야 끝났는데 에피소드도 많다. 문제지를 풀 때 자기의 생각과 틀리게 정답일 때는 엄청 우겨댄다. 가령, '체험학습을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가 문제인데, 보기에는 <가야할 곳, 지도, 음료수와 과자, 필기도구> 이렇게 있는데, 씩씩하게 음료수와 과자를 적었길래 그렇지 않다고 한참동안 설명을 했다. 공방전 끝에 그래도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마디를 한다. "그럼, 난 체험학습 안갈래."

저녁식사 시간에는 TV를 봐야한다며 거실에 저녁을 차렸다. 이모부가 양반다리를 하고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동진이가 얼른 이모부 한쪽 무릎에 걸터앉았다. 이모부가 "동진아, 무릎 아파. 얼른 니 자리에 앉

아서 밥 먹어." 하니까 조금도 망설임없이 대꾸한다. "남자가 이정도도 못 참아요? 약간 아픈 건 참을 수 있어야되요." 한다. 평소보다 일찍 재웠는데, 내일 아침에 제시간에 일어날런지...

2005. 9. 15 / 가을 운동회

아침에 일어나서 올려다본 하늘은 맑고 높아서 가을운동회 하기엔 그만인 날씨였다. 역시나 두아이 모두 높은 하늘만큼 기분도 up 되어 학교에 갔다. 이런 저런 의식과 단체놀이를 하고서 바로 1학년 달리기로 들어갔는데, 동진이는 1학년 1반에서도 첫 모듬에 뛰어서 카메라 꺼낼 틈도 없이 결승점을 통과해 버렸다. 놀랍게도 동진이가 가장 앞서 달려서 일등인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결승점을 불과 얼마 안남기고 뒤를 돌아본다. 어머, 재가 왜 저래 하는 순간 다른 친구가 먼저 들어가 버린다. 상품으로 노트를 받아온 동진이에게 "끝까지 열심히 뛰지 그랬어." 해도 마냥 싱글벙글 즐겁기만 하다. 그래도 2등이 어딘가? 누나는 달리기를 아주 조금 못하는데 오늘도 뒤에 한명 있었는지 아무도 없었는지 그렇다. 운동회의 재미는 역시 점심시간. 네가족이 모여서 애들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해 먹었는데 첫 운동회인 동진이에겐 기억에 남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다.



## 어진이네

2005. 10. 19 / 누나가 낫다

다혜 누나는 어진이를 참 예뻐한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어진이를 데리고 갈 때가 많다. 누나 친구들도 우리 어진이를 예뻐한다. 며칠 전에는 다혜 친구가 강화 전원주택에 사는데 고구마를 캔다고 거기에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흙강아지처럼 아주 잘 놀고 왔다. 멀미를 하니까 멀미약 먹이고 여벌의 옷도 챙기고... 어진이 날씨가 추워지면 코가 꼭 막힌다. 숨쉬기가 너무 답답하다. 코는 안 나오는데 코는 막혀 있다. 지난해는 이비인후과를 한참이나 다녔는데 그뿐이었다. 며칠 전부터 코가 막혀서 이비인후과를 가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어진이 눈혀 놓고 코 깊은데 가득 들어 차 있는 코딱지를 거짓말 보태 한 숟가락은 파 냈다보다. 귀지도 다 파내고... 나는 아이들 귀지도 손이 벌벌 떨려서 못 파 주



는데... 콧구멍을 청소하고 나니 어진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숨소리가 시원하다. 아이고, 우리 딸 야무지네. 엄마보다 훨씬 낫다. 이다음 엄마 되면 애도 잘 키울거야. 누구 멋진 남자 아이 없나. 우리 딸 참 관찮은데...

2005. 10. 26 / 엄마랑 결혼 안할거야

어진이 많이 컸고 이제 아주 말을 잘한다. 어린이집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또래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듯하다. 벌써 숫자는 다 알고 한글도 몇자 안다. 자기 이름도 비슷하게 써 놓기도 하고... 그 나이 때 곧잘 아이들에게 물어 보는 말. "어진이 누구랑 결혼 할거야? 엄마랑 할거야?", "아니. 엄마는 아빠랑 결혼해야지.", "엄마는 어진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나는 키가 작잖아. 아빠가 크니까 아빠랑 결혼 해. 나는 의자에 앉아서 볼거야.", "어진이 아빠처럼 클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 ".....", "어진은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 "중민이 형아하고!" 야! 이놈아. 엄마랑 결혼 안한다고 하더니 그래 중민이 형아랑 하나?



## 민교네집

2005. 11. 1 / 민교가 대안가정으로 왔습니다^^

(정민경 상담원)

민교가 대안가정으로 왔습니다. 예쁘게 단장하고 아빠, 고모, 고모부와 함께 사무실에 도착해서 과자를 먹으면서 고모와 잘 지냈습니다. 국장님께서 뽀뽀 앞머리를 보시고 예쁘게 해준다고 가위로 조금 잘랐더니 "으앙~" 울어버리더군요. 혹시나 대안가정으로 가는 도중에 울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 다행히도 출발하자 울음을 '뚝!~' 그치고 장난치며 웃기도 했습니다. 도착하자 마중 나온 대안가정 엄마에게 자연스럽게 안기더라고요. 엄마가 준비한 인형과 예쁜 옷 등을 보면서 좋아하는 민교를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대안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 '딸기' 에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교야! 언니들과 즐겁게 잘 지내라~ 더불어 딸기와도...



2005. 11. 3 / 민교

이틀째 민교와 보내고 있습니다. 아빠를 너무 좋아합니다. 엄마한테는 너무 비싼 뽀뽀를 아빠에게 남발합니다.ㅠ.ㅠ 후훗... 그래도 이쁜 민교. 오늘도 민교랑 엄마랑 외출했답니다. 민교 옷 사러요. 외투도 사고 상하복도 사고 내복도 3벌 사고.. 저희 딸 키울 때랑 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걱정이 있어요. 밥과 간식과일은 잘 먹는데 맘마를 안 먹어요. 이번기회에 젓병을 땀까지 해보았지만 맘마는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가서 24개월까지는 필수인데... 걱정이예요. 민교랑 보내는 하루가 너무 짧답니다. 이번 주말은 시댁가족이 모두 모인답니다. 우리 민교를 빨리 보고 싶다고 고모들은 성화 이십니다. 착하고 순한 민교. 지금도 웅얼웅얼... 너무 이쁩니다.

2005. 11. 9 / 민교는 감기중

주말에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고모들 봤을 때 참엔 울더니 금새 친해져 웃고 애교떨고 뽀뽀하고... 이쁨을 독차지 하구 왔어요. 거기 잔디밭에서 너무 신나게 놀았나봐요. 저녁부터 콧물에, 열에... 예효 계속 병원 다니고 있어요. 빨랑 나아야 할텐데... 좋은 구경시켜 줄려다 감기만 달고 왔네요. 아파서 그린지 밥도 맘마도 신통찮게 먹고 있어요. 사진 많이 찍었어요. 기대하세요.

2005. 10. 12 / 혜성이 엉덩이 때리고 마음이 편치 않다

오늘 아침 혜성이 엉덩이를 때렸다. 기저귀를 찬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렸지만 당시 내가 너무 화가나 있는 상태여서 마음이 편치 않다. 요즘 한창 저지레가 심한데 오늘 아침이라고 다른 날과 특별히 다른 것도 없었는데 내 마음이 여유가 없어 그렇게 해버린 것 같다. 소리소리 지르면서 엄마를 애먹이던 놈이 엉덩이를 맞고 나더니 갑자기 서러운 울음소리로 바뀌어 우는데... 아침에 친정에 혜성이 데려다주고 오늘 한대 때렸다고,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더니 한참 저지레 할 때라고... 그걸 왜 때렸냐고 안되어 하신다. 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엄마는 낙제점수다.

2005. 10. 4 / 독감 예방접종

10월 3일 아이들 셋 모두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 유현이와 혜진이는 하나도 안 아프다면서 신나하고, 혜성이는 엄청 울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예방접종 할 일 있으면 이정화 선생님이 계시는 영남이 비인후과에 가는데 매번 그냥 가라고 하셔서 이전 아예 뻔뻔스럽게 계산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나



## 해뜨는집

온다. "고맙습니다!"란 인사말도 이전 민망해서 잘 안하게 된다. 이정화 선생님! 무지 무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05. 11. 3 / 요즘 혜성이 정말 못말린다

개구진 표정하며... 우리 혜성이를 누가 말리랴. 고집불통에다가 제맘대로 못하게 하면 데굴데굴... 요즘 혜성의 주요과업은 혜진이 누나 방에 들어가서 놀기다. 혜성이가 누나방에서 놀다 나오면 누나 방은 폭탄맛은 꼴이 된다. 그래도 동생이 이쁘다는 우리 혜진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혜성이. 요즘은 말을 다 알아들어서 "혜성아! 머리 깎을까?"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혜성아! 개구장이라도 좋다. 그런데 다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 은별이의 귀가를 보면서...

정민경 상담원

아란, 은별이네 대안가정은 양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던 시어머님이, 치매로 고생하시는 친정어머님의 병간호로 더 이상 양육을 같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달 이상을 엄마 혼자 밤낮으로 두 아이를 돌봐왔으나 더 이상은 무리라는 생각에 가족들은 어렵게 은별이의 재위탁을 결정했습니다.

갓난쟁이를 위탁할 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아 기다리던 중, 은별이의 왼쪽겨드랑이 밑에 혹이 발견됐습니다. 영주에 있는 병원에서는 병명을 알 수 없어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했습니다.

엄마에게 은별이 상태를 알리고, 회사에 휴가를 내어 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주·야 교대근무로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검사가 늦어졌습니다. 엄마가 휴가일정을 잡았다는 갑작스런 연락에 부랴부랴 은별이를 대구로 데리고 와서 경북대학교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 예약도 못한데다 1차 진료병원의 의뢰서가 없어 진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치의이신 송광익 선생님께서 의뢰서를 팩스로 보내주셔서 진료도 받고, 의료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료결과 은별이는 BCG육아종이었습니다. BCG육아종은 예방접종을 하고 난 후, 주사가 아기에게 맞지 않아 혹이 생기는 것으로 약물치료나 수술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은별이는 피부색이 변할 정도로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엄마는 병원비와 은별이가 수술을 하고 회복될 때까지 간호를 해야하는 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비에 대한 부담과 은별이 간호를 위해 회사를 며칠 쉬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시댁에 상황을 알렸고, 은별이를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며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은별이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마침 은별이를 진료해주신 박진영 교수님께서 병원에서 입원비,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엄마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회사를 며칠 쉬게 되면 일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고 끝내 은별이를 시댁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은별이를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해서 병원비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은별이를 시댁으로 보낸다는 것은 아이를 포기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처음 위탁의뢰 될 당시부터 함께 해온 본부로서는 그 결정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젊은 엄마가 당장 먹고살기도 막막한 상황에서 아이와 함께 하기 위해 기반을 잡아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주위에서 은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려고 하는데 엄마가 조금만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이라면 아이와 함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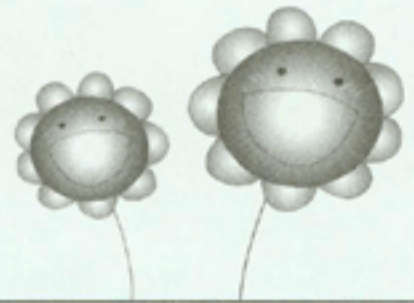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처럼 대안가정에서도 은별이가 진료만 받는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냈는데 갑작스런 위탁종료에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친가정이 안정적으로 회복되어 아이가 귀가를 하게 되면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지만 친가정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귀가를 하게 되면 과연 이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별이의 귀가 결정은 재위탁 할 가정의 부재, 엄마의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감, 장기 위탁으로 가게 될 가능성, 귀가의 불투명 등의 문제를 안고 위탁상황을 유지하는 것보다 조부모에게서 양육되는 것이 낫다는 점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별이가 수술을 받지 않고 귀가한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앞으로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 국화꽃이 활~짝! 웃음꽃이 활~짝!

- 대안가정 가족 나들이 -



야호~!! 놀이공원이다. ^o^



자~자~ 다음은 누구??  
사진찍기 한번 힘듭니다.



최다인원 참가!! 다혜네 가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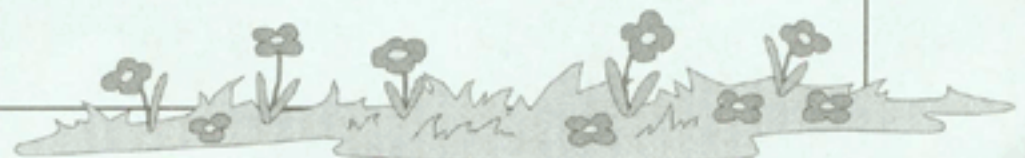


동감내기 장난꾸러기 대현이와 성민이  
카메라 앞에서 천문 모델 부럽지 않은 포즈...

10월의 마지막 날, 대안가정 가족들이 우방랜드로 즐거운 가족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대구, 영주, 봉화, 풍기, 상주... 각 지역에서 모두 모였는데, 안타깝게도 예진이네와 어진이네는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안가정 가족들이 한 자리에 마주했다는 것만으로도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식당에서 든든하게 식사를 하며 놀(?)채비를 갖추고 드디어 우방랜드로 입성!! 씩씩하게 앞장서는 건 역시 아이들입니다. 국화가 만발한 놀이공원 입구에서 예쁘게 가족사진을 찍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 시~작!! 사진으로 예쁘게 추억을 남기고 싶은 건 어디까지나 어른들의 생각이고 사실 아이들은 별 흥미가 없습니다. 특히 어린 가을이, 혜성이, 혜원은 어리둥절 귀찮기만 합니다. 애들아~ 그래도 사진은 잘 나왔잖아? ^^;

공식적인(?) 촬영이 끝나고 고대하던 즐거운 놀이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귀신의 집' 앞에 딱하니 멈춰선 동진, 태호, 준영. 큰 아이들은 역시 스케일이 남다른데다. 무서워서 뒷걸음질치는 엄마들을 두고, 저희끼리 가겠노라며 들어가더니 결국은 하루 종일 셋이 단짝으로 붙어다니며 스릴 넘치는 온갖 놀이기구를 섭렵했습니다.





야호~ 애들보다 더 신이난 아빠



우방랜드를 평정한 장난꾸러기 튜영, 태호

물론, 나머지 가족들은 아기자기한 유아용 놀이기구를 타며 나름대로 즐거움을 만끽했지요. 동심으로 돌아가 오랜만에 회전목마도 타고, 장난감처럼 생긴 기차도 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인데 어찌 즐겁지 않으리요~

헤어질 무렵, 아이들은 여전히 들떠서 앞으로 일주일도 더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른들은 어느새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피곤함도 금새 잊습니다.

대안가정이 모이는 곳은 늘 따뜻한 기운이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끝날 무렵에나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다음 만남은 퐁퐁 얼어붙은 겨울을 녹일만큼 더욱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아한 포트의 나래와 대현이



혜성이와 가을이의 치열한 눈싸움...--;;



어스면 햇님도 뉘뉘뉘 내려앉고...  
케이볼카로 출발!!



크롱~ 꼬깔콘 괴물이다~!!  
성민이와 가을이 고모



'아~ 똥~!! 나도 탈개라니깐~!!'  
자력미달(?)로 놀이기구를 못타자 분노한 혜성



## ■ 현황 및 소식

### □ 상담내용별 현황

상담 내용 월	아동위탁상담		대안가정상담		지원상담			기타	계	아동- 친부모 만남	신규 신청 가정	신규 의뢰 아동
	아동위탁 의뢰상담	친부모 상담	대안가정 신청상담	양육 상담	행정	주치의	타기관 연계					
7월	25	5	6	9	13	1	1	-	60	-	1	4
8월	23	9	9	13	14	1	7	14	90	-	3	8
9월	23	10	14	28	2	2	2	4	85	-	-	6
분기계	71	24	29	50	29	4	10	18	235	-	4	18

### □ 상담유형별 현황

상담 내용 월	전화상담	웹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기타상담	계
7월	43	4	-	13	-	60
8월	79	5	3	1	2	90
9월	71	5	5	3	1	85
분기계	193	14	8	17	3	235

## ■ 본부소식

### • 경북대 사회복지전시회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경북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주최한 사회복지전시회에 대안가정운동본부 홍보관이 전시되었습니다. 캠퍼스를 오가는 이들에게 대안가정운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 • APT(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부모교육

대구지역 대안가정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9월 22일 시작되었던 APT부모교육이 11월 3일 수료식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매주 각 대안가정을 돌아가며 방문해 진행했는데, 그래서 더욱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들, 그동안 교육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 숙명여대 대학원생 기관방문

10월 20일, 숙명여대 유아교육전공 대학원생 3명이 기초부모교육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주신 예쁜 국화꽃~ 고맙습니다.

## ■ 아이들 소식

### • 성민(6세, 남)이가 대안가정을 찾았습니다

이혼 후, 엄마는 쉬지 않고 일해야 했고, 성민이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다 위탁의뢰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상주에 있는 대안가정으로 갔습니다. 성민이는 과수원 농사를 짓는 대안가정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 • 은별(7개월, 여)이가 귀가했습니다

10월 10일, 은별이가 귀가했습니다. 건강문제로 진료를 받고, 다른 가정으로 재위탁 하기위한 절차를 밟던 중에 갑자기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친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은별이가 치료도 잘 받고, 늘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 • 민교(19개월, 여)가 대안가정을 찾았습니다

11월 1일 드디어 민교가 대안가정으로 왔습니다. 처음 위탁 의뢰될 당시 생후 8개월이었던 민교는 보내기가 마음아파 두 차례나 위탁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돌봐주던 고모의 건강악화로 다시 위탁 의뢰되었습니다. 민교가 대안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 • 혜운(7세, 여)이가 대안가정을 찾았습니다

혜운이는 심각한 방임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되어 위탁 의뢰되었습니다. 대안가정을 찾던 중, 그동안 혜운이를 돌봐주던 교회선생님께서 대안가정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혜운이와 대안가정에 항상 기쁨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 • 진이(8세, 여)와 민이(12세, 여)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둘 다 갓난쟁이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겨졌습니다. 진이는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사정에 있고, 민이는 부모가 연락두절되어 함께 사는 원장님이 아이들의 엄마이고 가족입니다. 본부에서는 원장님이 가정위탁절차를 밟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 외부행사

###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세미나 참석

9월 1일, '제1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세미나'에 김명희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아동권리와 가정위탁'이라는 주제로 가정위탁보호사업에 있어 아동중심의 관점을 강조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 • 가정위탁활성화를 위한 지역포럼

9월 12일,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전문위탁부모교육 - 가정위탁활성화를 위한 대전충청지역포럼'에 장효점 상담원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은 대전·충청지역의 가정위탁 현황과 개선점을 짚어보는 세미나였습니다.

### • 일본과 한국의 가정위탁

11월 14일, 제6차 가정위탁교육세미나 '일본과 한국의 가정위탁'에 장효점 상담원이 참석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가정위탁 현황을 비교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 ■ 3/4분기 회비 및 후원 내역 (2005년 7월~9월)

이사회비		정회원 회비		후원회원 회비	
김규원	90,000	김초자	20,000	(주)모티스	100,000
배성우	90,000	김하수	30,000	TCN대구방송	50,000
배순균	90,000	김현희	10,000	강경희	30,000
송광익	240,000	김호근	15,000	강미순	40,000
우극현	90,000	김환준	20,000	경북여고91회동기회	60,000
은재식	90,000	김휘동	30,000	강한우	20,000
이병희	150,000	나눔회	60,000	고병민	30,000
이수형	400,000	네버랜드	80,000	곽운섭	30,000
이왕욱	90,000	동진산업	60,000	곽한숙	30,000
이태원	150,000	문우경	30,000	권경아	30,000
정영숙	90,000	민순기	30,000	권영활	15,000
		박광립	60,000	권용한	15,000
		박기호	60,000	권응후	150,000
		박동준	30,000	권일섭	30,000
		박문욱	30,000	권점숙	30,000
		박성천	30,000	권정애	30,000
		박시하	30,000	권현수	30,000
		박신연	30,000	권효성	15,000
		박연금	30,000	금병태	60,000
		박옥란	30,000	김경숙	30,000
		박은진	10,000	김경현	30,000
		박임순	20,000	김기발	15,000
		박천훈	30,000	김낙원	30,000
		박형룡	60,000	김득희	20,000
		박혜숙	90,000	김명국	30,000
		방성란	20,000	김명기	30,000
		배성훈	30,000	김명희	30,000
		배창환	5,000	김상범	60,000
		배태순	60,000	김상기	15,000
		백기웅	30,000	김상진	5,000
		백민경	15,000	김수득	30,000
		백석환	30,000	김성기	100,000
		변중구	60,000	김연경	30,000
		서숙	30,000	김영태	30,000
		서진천	150,000	김영학	90,000
		서효석	10,000	김원수	500,000
		손병혁	15,000	김원식	30,000
		손성라	30,000	김유라	30,000
		송계무	30,000	김의룡	30,000
		송창섭	30,000	김재수	30,000
		신은정	30,000	김제덕	20,000
		심진완	30,000	김종오	60,000
		심형순	15,000	김중열	15,000
		안의진	150,000	김진석	30,000
		안이정 <sup>선</sup>	30,000		
		양덕근, 김해경	60,000		
		오길수	30,000		
		오은환	60,000		
		오직렬	30,000		
		오찬현	30,000		
		오태동	50,000		
		우연조	30,000		
		우연경	30,000		
		원순옥	100,000		
		유은주	40,000		
		윤순영	30,000		
		은완수	30,000		
		이건호	30,000		
		이금련	10,000		
		이동환	30,000		
		이문기	60,000		
		이미선	30,000		
		이미숙	30,000		
		이병호	15,000		
		이상율	30,000		
		이상훈	30,000		
		이성희	30,000		
		이순임	20,000		
		이신자	30,000		
		이영석	15,000		
		이영찬	15,000		
		이영화	60,000		
		이영희	30,000		

### ■ 3/4분기 재정보고 (2005년 7월~9월)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결산액	관	항	목	결산액
회비			9,170,000	사무비			13,034,230
회비			9,170,000	인건비			9,505,680
이사회비			1,770,000	급여			7,650,000
정회원회비			520,000	제수당			1,350,000
후원회원회비			6,880,000	보험부담금			505,680
후원금			3,238,066	업무추진비			120,000
후원금			3,238,066	회의비			120,000
일반후원금			2,984,066	운영비			3,408,550
특별후원금			254,000	여비			111,000
잡수입			5,000,000	수용비			49,190
차입금			5,000,000	공공요금			560,360
기타차입금			5,000,000	제세공과금			2,000,000
				차량비			624,100
				잡비			63,900
				재산조성비			2,000,000
				시설비			2,000,000
				자산취득비			2,000,000
				사업비			2,024,940
				일반사업비			2,024,940
				상담사업			152,870
				대안가정지원			1,030,000
				출판홍보사업			760,070
				회원사업			82,000
총계			17,408,066	총계			17,059,170
전년도 이월금			-	잔액			348,896
합계			17,408,066	합계			17,408,066

#### ◆ 회비 및 후원 관련 안내

- 대안가정운동본부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로로 회비 및 후원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금융결제원에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실제 입금하신 날짜와 차이가 있습니다. (약 5일 소요)
- 회비 및 후원금은 가능한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면 좋습니다. 대구은행 계좌가 있으신 경우, 계좌를 알려주시면 사무국에서 자동이체 신청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E·MART 영수증으로 후원하기

이마트

이마트 영수증으로 대안가정운동본부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금액의 0.5%가 후원금으로 적립된답니다.  
 고객만족센터나 무인적립기에서 대안가정운동본부를 확인하시고  
 아래 번호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월배점 168번	만촌점 97번
성서점 146번	칠성점 94번
반야월점 52번	

이마트에서 즐겁게 쇼핑하신 후에는 '영수증 후원' 잊지마세요!  
 사무국으로 영수증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전국 어느 지점 영수증이나 가능)

## 후원안내

꼭 대안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공감하되 당장 실천할 수 없는 분들은 대안가정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대구은행 : 068-05-005600-9  
 농협 : 718-01-176941  
 국민은행 : 602-01-0688-119  
 조흥은행 : 801-01-276520

(대구은행의 경우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사무실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며, 타은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안가정운동본부 약도



버스노선 : 일반 434, 603, 616, 623, 650, 750, 808, 836, 609  
 좌석 306, 600, 608